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17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3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이상욱, 이성배, 홍국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긴급상황 발생 및 안전안내 등 재난문자 발송 시 외국인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조례에 외국인을 위한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재난문자 발송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상황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외국인을 고려해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전달문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안 작성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시 외국인을 고려하여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전달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시 외국인을 고려하여 개인용 무선단말기의 영문 전달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 전달문안 작성 기준 및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제6조 제4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재난안전기획관 재난상황관리과)에서 재난상황별 예보·경보 영문 전달사업을 기시행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참고자료로 위 사업과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 기사를 첨부함(붙임)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3
e-mail : sseol789@seoul.go.kr

[붙임] 서울시 영문 재난문자 발송 관련 언론내용(2026. 3. 20.자)

HOME > 이슈N

"갑자기 영어 문자가?"...BTS 공연에 첫 '영문 재난문자' 발송

▲ 강정욱 기자 | ⓒ 승인 2026.03.20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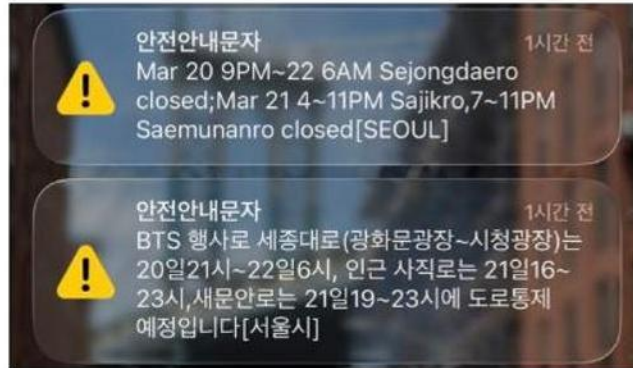


사진: 행사관련 안내문자

[젠머니=강정욱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한·영 재난문자를 첫 동시 발송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BTS 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 계획을 담은 안전 안내 문자를 한글과 영어로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난문자를 한글과 영어로 나눠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TS 공연을 전후해 외국인 방문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문 재난문자를 추가했다. 이번 한·영 동시 발송은 공연 당일인 21일 종료 후 관람객 퇴장 안내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본어와 중국어 등 추가 언어도 검토했지만, 재난문자 발송 횟수 제한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재난문자 발송 방식도 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Emergency Ready App(이머전시 레디 앱)' 중심 안내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문자 발송으로 보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BTS 관련 안전문자를 한글과 영어로 한 번씩 나눠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매하고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개최한다. 이번 컴백쇼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 생중계된다.